

조계종의 역사의식은 건강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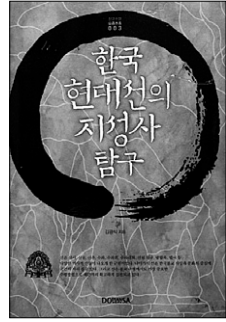
김광식 교수 '한국 현대선의 지성사 탐구' 서 용성·학명·한암 스님 등 선승 조명

출가자의 혼인과 육식 행위는 근 현대 한국 불교에서 정화와 분규의 단초가 됐다. 근현대 선지식이었던 용성 스님(1864~1940)은 두 차례에 걸친 건백서를 통해 대치식육의 금지를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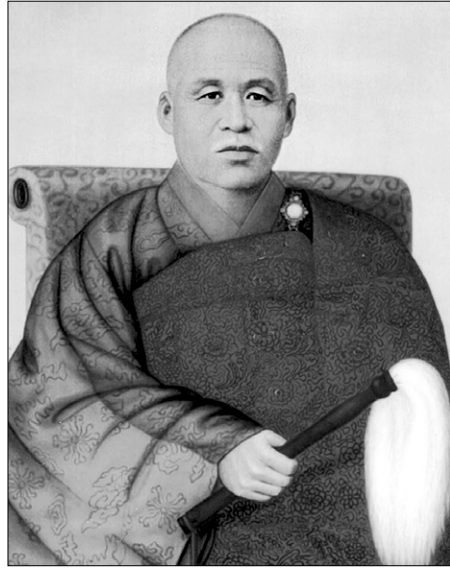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는 최근 출간한 <한국 현대선의 지성사 탐구>에서 '용성의 건백서와 대치식육의 재인식'을 통해 용성 스님이 조선총독부에 건백서를 제출했던 1920년대 당시를 중심으로 대치식육 논란을 학술적으로 조명했다.

용성 스님은 1926년 5·9월 뜻을 같이 하는 출가자 127인의 날인을 첨부해 '불법에는 대치식육의 실이 없다'는 건백서를 조선총독부에 제출했다. 당시 일제 및 불교계는 용성 스님의 제안을 거부하고, 사법개정을 통해 스님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단행했다.

김광식 연구교수는 "건백서 제출 이후 대치의 풍조가 점차 확대돼 1930년에 이르러서는 불교계의 80%가 대치식도 주지가 가능할 뿐더러 대치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용성 스님은 한국 근대불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지식이다. 스님은 선승불교·역경불교를 실천하면서 불교계 혁신운동에 앞장섰다.



김광식 연구교수는 "용성 스님이 건백서를 제출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한국인 화승이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귀국한 이후 대부분 결혼을 하게 된 데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교수는 "1925년 유학생 출신의 대치승이 본산 주지에 취임하기 위해 본산 사법개정을 추진했으나 일부 본산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

가 있었다"면서 "친일파이자 불교도인 이완용을 내세워 일제 당국에 로비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김광식 연구교수는 '매일신보'를 인용해 "일제가 승려의 대치식육을 강요한 것은 아니지만 합법화시켜 그것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교를 비롯한 각 종교에는 종교

별 정체성을 상징하는 계율이 있다. 대승불교에서는 계율을 중요시 여기며 이를 어길 경우 파계승이라고 해 승단에서 내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연유로 192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대다수의 스님들이 대치식육을 별 고민 없이 수용했던 것일까?

이에 대해 김광식 연구교수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시도했다.

김 연구교수는 "개항과 승려의 도성출입 금지 해제 이후 승려의 신분 상승 및 사찰 안정 등의 요인으로 승려 인권이 고양됐다"면서 "스님들의 일본 유학이 늘어난 것도 한 이유"라고 말했다.

김광식 연구교수는 "조선시대에는 승유역불로 승려는 천민으로 매도당하고, 한양의 사대문 출입도 금지 되는 등 열악한 대우를 받았다. 역을한 대우를 받던 승려가 개항(1876) 이후에 서서히 신분이 상승된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뇌 및 입장의 표명을 말하기 어렵다면 그것은 중단의 자정 기능과 역사의식이 건강하지 못한 데에서 나온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만해 한용운이 舊 한국정부와 통감부에 '승려 결혼은 자유스럽게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도 승려의 결혼문제가 사회에서 용인된 한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김광식 연구교수는 "최근 승려들 사이에서는 육식에 대해 관대한 추세이고, 15년 전에는 학술토론회에서 은처승 문제가 다뤄지기도 했다"며 대치식육에 대한 현 불교계의 인식상향을 덧붙였다.

김 연구교수는 "조계종은 식민지 불교의 모순을 극복하려고 전개한 불교정화운동에 의해 재건된 종단"이라며 "조계종단 구성원이 어떻게 현실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뇌 및 입장의 표명을 말하기 어렵다면 그것은 중단의 자정 기능과 역사의식이 건강하지 못한 데에서 나온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한편, 책에는 △백학명의 불교개혁과 선농불교 △한암의 종조관과 도의국사 △송서암의 불교개혁론 등 근현대 선사 불교사상사적으로 재조명된 저자의 연구논문이 수록됐다.

이은정 기자

조선 말~일제시기 산림분쟁 담겨 조명제 교수 등 '조계산송광사사고-산림부' 출간

조명제 교수 등 '조계산송광사사고-산림부' 출간

사지는 특정 사원을 중심으로 한 불교사의 기본 자료다. 동시에 사지는 미술·건축·사원경제·지방사회·문학·문화재의 보존과 조사 등 전통문화 전반과 폭넓게 관련된 자료다. 자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지는 한문으로 돼있는데다가 불교사·한국학 등 종합적인 기초 지식이 요구됐기 때문에 그 활용이 활발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조계산송광사사고(史庫)-산림부>가 완역돼 출간됐다(사진·해인출판사 펴냄). 인물부 완역에 이은 성과다.

조명제 신라대 교수, 김탁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용범 부산대 외래교수, 정미숙 신라대 외래교수가 번역에 참여했다.

책에는 산림부의 내용인 송광사의 지리, 봉산, 별채 및 산림을 둘러싼 분쟁 등을 담고 있으며, '주지선생안(住持先生案)'이 수록돼 있다.

조선시대 말과 일제시기, 송광사

와 지역민 간의 산림이용권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와 관련된 각종 공문과 진술서, 계약서, 시찰서 등이 수록돼 분쟁의 진행과정도 알 수 있다.

또 책에는 송광사와 선암사 사이에 토지소유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 사례가 소개돼 있어 사원의 사유림 지배 실태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명제 교수는 "산림부 자료는 조선 후기 불교사회경제사의 기초적인 자료이면서 산림정책 및 지방사회의 구체적인 사례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정 기자



이은정 기자

불교대중화 기여... 관련 연구 미흡

김성연씨, '조선불교중앙교무원' 조명

일제 강점기, 불교계의 중심역할을 했던 교무원의 활동과 시대적 상황을 조명하는 연구논문이 나왔다.

동국대 박사과정 김성연씨는 불교학연구회(회장 분가)가 3월 13일 개최한 '불교학연구회 논문발표회'에서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의 자산구조와 운영'의 주제를 발표했다.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이하 교무원)은 1922년 5월에 세워진 단체로 본산 주지들이 불교유산을 내세우던 총무원 세력에 대응하며 설립됐다. 교무원은 총무원과 평교를 경쟁구도를 만들어오다 총무원의 후원으로 1922년 10월 62만1799원51전의 자산으로 '재단법인' 설립을 결의해 불교계 최초로 재단법인을 출범시켰다.

이후 교무원은 1924년에 총무원 세력을 흡수 통일했고, 통합된 불교계는 재단법인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해 나갔다. 그 가운데서도 학교 경영을 통한 교육 사업은 불교계가 근대화를 이루는 데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이다.

김성연씨는 "교무원은 1923년 재단법을 제정하고 있던 천도교 설립학교

인 '보성고등보통학교'를 인수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재단법인의 재산은 기부행위로 들어온 1종 재산과 이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연 8%의 이자금인 2종 재산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 번도 2종 재산의 수입이 달성된 적이 없어 재정을 겪게 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교무원은 설립 이후 교육과 포교 사업에 중점을 뒀다. 김씨는 "교무원은 근대식 학교인 보성고보를 경영해 많은 인재를 배출하는 등 불교를 대중화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면서 "1930년대에 들어서 안정된 수입원을 확보하지 못해 부채에 시달렸지만 불교계 전체를 대표해 사업을 진행하고 전국 각 사찰로부터 재산을 모으는 행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이러 김성연씨는 "교무원이 재단법인 행성을 갖추고 1920년대 불교계 대부분의 사업을 총괄했던 중심 기관이었음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 교무원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정 기자

이은정 기자

전통사찰 정비 경기도, 29곳에 23억

경기도가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 추진한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수원 팔달사 종무소 개축 등 도내 29개 전통사찰에 23억원을 들여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3월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29개 사찰의 대웅전 삼상과 미타전 등 불전·법당 시설의 정비사업을 우선으로, 선원 요사채 등 부대시설과 등산·관광객 편의를 위한 화장실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내 전통사찰은 99개, 문화재 보수사업은 52개로 이들 사찰에는 국가지정문화재 35점을 비롯해 도지정문화재 101점 등 136점의 문화재가 소장돼 있다.

이은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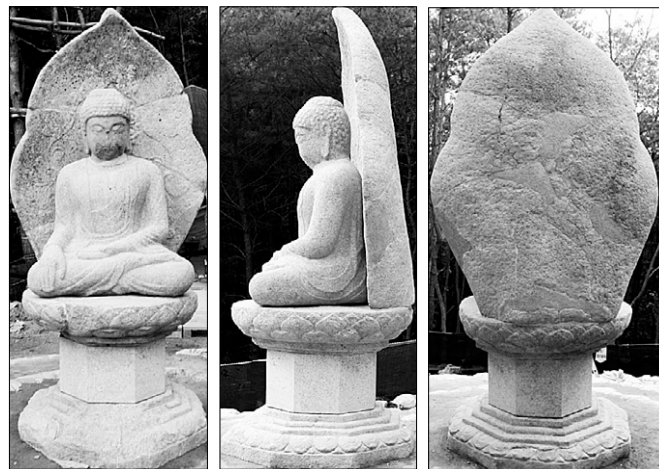
경주 열암곡·삼릉계 보고서 발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 원형관리 지침서 되길..."

경주 남산지구에는 크고 작은 여러 계곡과 능선 정상부 곳곳에 다양한 석불·석탑과 마애불이 산재해 있다.

경주 남산에서 2007년부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해 온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최근 열암곡·삼릉계 석불좌상 2구를 보수·정비한 보고서를 발간해 눈길을 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 이하 연구소)가 발간한 <경주 남산 삼릉계석불좌상 보수·정비 보고서>와 <경주 남산 열암곡 석불좌상 보수·정비 보고서>에는 열암곡·삼릉계 석불좌상이 발견된 때부터 보수정비가 완료



열암곡 석불좌상이 복원된 모습.

된 시점까지의 과정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연구소는 2007년 3월경 삼릉계 석불좌상이 위치한 주변 일대의

이은정 기자

대한불교 조계종 어장(魚丈)스님 전통의식 강의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대한불교 조계종 어장스님 동주원명 큰스님께서서는 불교 전통의식의 보존, 계승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하여 전문의사인 상주권공, 각배, 영산 과정을 마친 스님이나 또는 이에 준하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실천 재 의식을 중심으로 월 2회 직강을 해 주십니다. 뜻있는 스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강의내용 : ① 수록재, 예수재, 영산재, 49재, 점안의식 등 ② 불공의식(전통 상용의식)
- * 강의일시 : -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오후 2시) - 첫강의 : 2010년 3월 29일(월)
- * 강의장소 : 서울시 강서구 가양 1동 226 흥원사
- * 모집인원 : 00명
- * 연락처 : 02)2658-3100, 010-3840-0624 (홈페이지 www.hongwonsa.org)

대한불교 조계종 전통의식 보존 연구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